



“요즘처럼 인공지능(AI) 기능을 즐기는 학생의 모습을 그려줘”라는 요청에 챗GPT가 만든 그림.

챗GPT

시작이 반? ‘시작’은 반 이상!

Cover Story

일상 속 AI와 동행 나선 MZ



대입용 AI 면접 서비스 이미지. 케이이미지뱅크



“챗GPT가 없었을 땐,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공부와 과제, 입시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막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구조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작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0·20대 최신 트렌드로 꼽히는 ‘AI작’은 AI와 시작의 합성어로, 시작의 순간 AI와 함께 틀을 잡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자신만의 결과물을 완성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AI를 통한 시작의 편리함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대입 심층 면접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챗GPT에 생활기록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학습시킵니다. 이후 “나는 경영학과 지원자이고, 너는 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입학사정관이야. 대입 면접을 진행해줘”라고 상황을 설정하자 AI가 이에 맞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 좋습니다. 경영학과 입시 모의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자님,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그리고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라며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이 답변하면 AI가 내용을 분석한 후 “경영학의 특정 분야를 선택해 본인의 경험을 연결 지으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것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나아가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수정된 버전을 참고해 보세요”라고 수정 답변까지 제공해 학생이 더욱 완성도 높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록부 기반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역 축제에서 참가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지역 축제가 활성화 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영화로 보는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교내 계시물을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운 가치는 무엇인가요?” “마케팅 믹스를 활용해 프로야구팀의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마케팅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 생활기록부 내용과 최신 면접 데이터를 활용한 질문을 생성합니다.

최근에는 모의 면접을 통해 비언어적 요소까지 실시간 분석해주는 AI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대입용 AI 면접 서비스 ‘몬스터T’는 카메라를 통해 답변하는 학생의 표정, 목소리 크기나 높낮이, 시선 처리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분석하고 면접 태도까지 평가해줍니다.

김혜순 기자·김민성 인턴기자

편리함이 프리미엄... MZ세대 맛집 된 편의점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해자 도시락·밤 티라미수
손살치킨·노티드 도넛
축구팀 굿즈 사러가기도
싼 간식 파는곳은 '옛말'
시간 아끼고 품질도 '굿'
MZ세대 소비 변화 중심



해자로운 도시락



반티라미수컵



손살치킨



노티드 도넛

"편의점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옛말이죠. 요즘은 웬만한 식당보다 나아요."

중학교 2학년 서재영 군(15)은 학원에 가기 전에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릅니다. '속초 흥계 라면'과 '해자로운 도시락'을 사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기념일에는 여자친구에게 줄 '밤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서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 굿즈를 구매하고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응원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편의점은 더 이상 간단한 간식이나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속초에 방문하지 않아도 '속초 흥계 라면'을 즐길 수 있고 흑백요리사의 식당에 찾아가지 않아도 '밤 티라미수 케이크'를 맛볼 수 있는 '편리미엄'의 공간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높은 품질의 음식부터 각종 덕질 아이템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며 편의점은 '편리미엄'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편리미엄'이란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도 높은 품질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편리미엄' 트렌드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편의점, MZ세대의 시성비 소비 중심지로 떠오르다

MZ세대는 시간 대비 최고의 성능, 즉 '시성비' 소비를 중시합니다. 과거에는 편의점이 주로 저렴한 간식이나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시성비 좋은 프리미엄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들은 MZ세대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GS25의 모바일 앱 '우리동네 GS'의 매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상품으로 '손살치킨' '점보 도시락 라면' '김해자 도시락' 등이 눈에 띕니다. 1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손살치킨'은 매장에서 바로 튀겨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았습니다. '점보 도시락 라면'은 대용량 라면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6~7첩 반상을 담은 '김해자 도시락'은 '엄마 밥상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기업들 '편리미엄'으로 MZ세대 공략

기업들도 '편리미엄' 트렌드에 발맞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편의점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GS25는 유명 도넛 브랜드 '노티드'와의 협업을 통해 노티드 우유와 도넛 제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가공유 부문에서 누적 판매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프로축구 K리그나 인기 캐릭터 산리오와의 협업 제품을 선보여 한정판 굿즈를 완판시키는 등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이나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핫한 협업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이 제품들은 시간 절약과 쇼핑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스마슈머 MZ, 편리미엄 트렌드를 이끌다

'편리미엄' 트렌드의 성공 배경에는 '스마슈머'의 역할이 큼니다. '스마슈머'는 '스마트'와 '컨슈머'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해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튜브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인증하는 형태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 갑니다.

'두바이 초콜릿' '점보 도시락' '지구젤리' 같은 인기 편리미엄 상품들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출시 직후부터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재영 군은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음식이나 간식거리를 직접 구하기 힘든데, 편의점에는 유행 시작 며칠 만에 다 들어와서 좋다"고 말하며 "편의점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어른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전했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은·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매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삼성 있는 화성·SK 이천까지 댚치는 ‘일손절벽’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한 호텔 라면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다.

이홍우 기자

즐거는 경제활동인구 급감 경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동탄신도시가 있어 수도권 최고 ‘핫플’인 경기 화성시가 20년 후에는 현재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철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재정정책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42년까지 전국 209개 시군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90%에 해당합니다.

특히 화성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 환경 덕분에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가 증가해왔지만,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대비 최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경기 이천시도

▶NIE 준비하기

1.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2. 저출생 문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980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늘었지만 2042년에는 2022년보다 경제활동인구가 15~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정책은 지역 및 산업 맞춤형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0월 30일 A1면

진격의 K라면 수출 10억달러!

전 세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자 삼양은 불닭볶음면, 불닭소스 등을 통합 홍보하기 위해 이달까지 타임스퀘어에 광고 영상 ‘스플래시 불닭’을 방영합니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약 30% 증가한 10억2000만달러(10월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10억달러를 라면 개수로 환산하면 약 20억

▶NIE 준비하기

1. 한류 열풍이 K라면의 수출 증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한국 라면 산업의 글로벌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논의해 봅시다.

6522만개로 1초에 79개, 1분에 4718개씩 수출된 셈이며 면발 길이는 지구를 약 2576바퀴 휘감습니다. 라면 수출은 2014년 2억1000만달러 이후 매년 증가했습니다. K라면의 인기 배경에는 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힘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일 A1면

젤렌스키 “북한군 투입임박, 곧 교전 시작”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군과 북한군의 교전이 수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 병력이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전은 이제 몇 달이 아닌 며칠 내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에 파견할 1만2000명 외에 추가 병력을 보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약

▶NIE 준비하기

1.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북한군과의 교전 가능성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2. 북한의 군사행동이 강화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봅시다.

3000명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며 이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통해 서방과 한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 10월 31일 A8면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핵심록!

25%

2022년부터 2042년까지 화성시 경제활동인구 감소율

10억2000만달러

올해 한국 라면 수출액 (10월 기준)

1만2000명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수



무엇이든 똑딱... 생성형AI는 MZ의 '요술램프'



유튜브 채널 '1분 타임머신'

유튜버 '1분 타임머신'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 GPT에 다양한 명령어를 입력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거대 로봇을 만들어 보았다', '한국이 우주 전함을 만든다면'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함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화제가 되면서 채널 개설 10개월 만에 구독자 8만7000명을 모았습니다.

Z세대 사이에서는 AI 필터를 활용해 일상 사진을 독특하게 변환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는 문화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점토 인형처럼 피사체를 바꿔주는 '플레이 필터'나 만화 캐릭터로 변환하는 2D 애니메이션 필터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졸업사진 콘셉트로 변환해주는 AI 필터가 등장해 작년 한 해만 앱스토어에서 약 7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공부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 놀이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을까요?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뉩니다.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턴을 학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챗GPT의 구동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신경망을 사용한 '머신러닝'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먼저 AI가 사람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패턴을 찾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AI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에 맞춰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되도록 설계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최적화된 답변을 생성해 대화형 서비스에서 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지식이나 코딩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비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존 AI가 주로 예측이나 정보 분류에 집중했다면, 생성형 AI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마케팅, 예술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만들 만큼 기술이 발전했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진단 정보 입력만으로 의료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목표 고

AI 이어북

내가 90년대 미국 고등학교에 다녔다면?
내 사진 넣고 레트로 졸업사진 만들어보기



미국 졸업사진 콘셉트로 변환해주는 AI 필터.

스노우

객, 요구사항을 입력해 광고 문구와 포스터를 단 10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곡의 길이나 분위기를 입력하면 AI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주고, 어울리는 영상까지 제작해 뮤직비디오로 추천해주시기도 합니다.

알케미 크루(Alchemy Crew)의 CEO이자 벤처 파트너인 서빈 밴더린덴은 생성형 AI가 비즈니스의 미래를 혁신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는 "마케팅에서 고객 맞춤형 프로파일링을 제공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정확히 처리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효율성과 개인화, 예측 정확성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측이 어려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킨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매년 약 2조6000억~4조40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1년 영국의 전체 GDP와 맞먹는 규모로, AI의 영향력이 앞으로 1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박세윤 인턴기자

한국이 만든 우주전함
美졸업식 콘셉트 사진
재치 넘치는 숏폼·필터
젊은층 사이서 큰 인기
똥똥한 비서 기능 넘어
사회 전분야 혁신 '주목'



“지방 학생 기회 늘려야” vs “대학 경쟁력 떨어질 것”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남 학군 대입 정원 상한제'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와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강남 일대 사교육 열풍이 집값과 가계 대출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불평등 심화와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총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며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의 인재 선발권을 침해하고 수도권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 및 집값 안정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서울 강남·수도권 거주를 선호하고, 이 지역 주택 수요 증가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교육열은 자녀 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의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출신 고교 졸업생들이 한국 최상위 명문대에 과도한 비중으로 입학하면서 지방 출신 학생들의 기회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대담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교육 불평등 해소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진학에 있어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92%는 '거주 지역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잠재력보다는 거주 지역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 개인의 잠재력이 미친 영향은 25%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으로 삼은 학생의 잠재력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인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 사교육이 시작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는 계층 간 이동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 대학의 자율적 인재 선발 침해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할당해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대학의 인재 선발 기준과 방법은 각 대학의 철학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각 대학이 여러 요소를 감안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요람이자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기관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학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 잘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가 지역에 따라 강제로 선발 인원을 할당한다면 대학이 인재를 선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으로 인해 국내 주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수도권에서 자라고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의 경제력보다는 자신의 잠재력과 노력으로 높은 학업 성과를 이룬 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까지 거주 지역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주요 일자리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자산과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화된 상황에서 입학 인원만 제한한다면 그 안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강남 학군 대입 정원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인턴기자

핵심!

- 1 치열한 입시 전쟁과 집값 상승 간 관련성은
- 2 지역 간 불공정한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 3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 인재 선발권을 침해할까

큰 선물 한번보다, 작은 선물 여러번이 감동적인 까닭

Q.

얼마 전 학원에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첫인상부터 예쁘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랑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게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제가 과제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하고 싶어요. 용돈을 모아서 좋은 걸로 한 번 선물하는 게 나을까요, 작은 선물을 여러 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행복하게 오래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김나연 선생님의
쉬운 경제

A.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가 생겼군요? 게다가 친절하게 도움도 잘 주시고요. 고마운 마음이 들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게 꼭 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걸 말로 표현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하고자 한다면, 작은 선물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큰 선물 한 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출출한 오후에 달콤한 호두 파이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한입은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 다음 한입도 맛있겠죠. 하지만, 한입 한입 먹는 양이 늘어갈수록 먹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은 줄어들죠. 한 번에 호두 파이 한 판을 모두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좋겠죠?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비슷해요. 작은 선물을 받아 기쁨을 느끼고, 얼마 지나서 또 다시 작은 선물을 받아 기쁨을 느끼는 걸 반복하는 게 큰 선물 한 번보다 기쁨의 총합이 훨씬 커요.

이익의 양이 적을 때는 변화에 민감해서 작은 변화가 비교적 큰 행복감의 변동을 가져오지만, 이익의 양이 커짐에 따라 작은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거든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100만원을 얻으면 엄청 기쁘지만, 100만원이 있는데 또 100만원이 더 생기면 덜 기쁠 거예요. 얻는 이익의 양이 늘어감에 따라 같은 양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감은 줄어드는 거죠. 한 번의 큰 행복보다 여러 번의 작은 행복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행복의 총량보다, 행복의 빈도가 중요한 거랍니다.

그럼 10원을 20만번 받는 건 어떨까요? 작은 선물 여러 번이 좋지만, 한 번 받는 선물이 너무 작아서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겠지요. 작은 선물이라도 '내 마음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최소 가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장부에 기록(booking)하는 최소 가격(price)이라고 해서 '부킹 프라이스(booking price)'라고 불러요. 결론은, 부킹 프라이스 이상의 선물 여러 번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일 년 치 용돈을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보다 매월, 혹은 매주 받는 게 낫겠죠? 그런데 더 쪼개서 매일 받으면 어떨까요? 한 번에 받는 액수가



게티이미지뱅크

너무 적어서 그로 인해 느껴지는 행복감이 미미하다면, 1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르겠지요.

여러분에게 돈이지만 어른들에게 일하고 받는 임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보편적이라 '월급'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유럽에서는 주 1회 받는 경우도 꽤 된다고 해요. 북유럽인들의 부킹 프라이스가 우리보다 낮아서 아닐까요?

부킹 프라이스가 낮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부킹 프라이스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위시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위시리스트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건물주'예요. 빌딩을 사면 기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빌딩을 구매하는 건 너무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소하지만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의 위시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위시리스트면 더 좋겠네요! 요즘 뜨는 베이글 집에 가보기, 맛있다고 소문난 빙수 먹기,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기……. 하고 싶은 작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어두고, 용돈을 모으고 함께 시간을 내서 하나씩 하면서 지워주세요. 그 일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의 장부에 행복으로 기록될 테니까요. 작은 기쁨을 쌓아가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실용경제반 운영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큰 선물 한 번보다는 작은 선물 여러 번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1만원을 얻으면 엄청 기쁘지만, 10만원이 있는데 1만원이 더 생기면 덜 기쁜 것과 같다. 한 번의 큰 행복보다 여러 번의 작은 행복이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선물이 마음의 장부에서 행복으로 느껴지는 최소한의 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

잘쓰면 혜택 많은 신용카드, 무분별 사용땐 신용 핑크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이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점에서 편리하고, 어떤 도움을 줄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또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똑똑하게 돈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신용카드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한다.

1.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중에 돈을 갚아도 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도, 신용카드가 있으면 장난감을 사고 다음 달에 돈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는 잠깐 동안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2. 카드로 물건을 사기 시작한 이야기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는 카드가 없었다. 하지만 1969년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백화점 전용 카드를 만들어 주기 시작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나중에 줄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다.

3. 신용카드의 발전으로 여러 곳에서 쓸 수 있게 되었다.

197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신용카드가 외환은행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 이 카드는 신세계백화점 카드와 달리, 다른 가게들에서도 쓸 수 있어서 더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여러 카드회사가 생겼고, 이제 카드만 있으면 거의 모든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카드 한 장으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사고 나중에 갚는 게 정말 편리해졌다.

4. 신용카드 남발에 따라 카드를 많이 써서 문제가 생겼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용카드 회사들이 아주 많은 카드를 발급해주었다. 누구나 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쓰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쓴 돈을 나중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면서 '카드대란'이라는 일이 생긴 것이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카드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5. 신용카드 사용이 안전해졌다.

카드 대란 이후 정부는 카드 회사들이 너무 많은 신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제를 했고, 카드 발급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쉽게 카드를 만들 수 없고, 카드 회사는 고객의 신용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서 적당한 신용 한도를 주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이 더 안전해졌다.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6. 신용카드는 안전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카드 회사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누군가가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큰돈을 쓰려고 하면, 카드 회사는 이걸 감지하고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상한 거래가 나타나면 카드 회사가 바로 연락을 줘서, 나도 모르게 누가 돈을 쓰는 일을 막아 주는 것이다.

7. 포인트, 캐시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신용카드로 돈을 쓸 때마다 카드 회사는 포인트를 쌓아 주거나, 캐시백을 주기도 한다.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물건 사면 매번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그 포인트로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일부 카드들은 특정 가게에서 할인을 해주기도 한다. 카드 회사는 이런 혜택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더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8.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분석할 수 있다.

카드 회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자주 사는지 분석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혜택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를 자주 보는 소비자라면 영화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나 할인 쿠폰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카드 회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분석하고,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9.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요즘은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기만 해도 결제가 끝난다. 카드사들은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와 협력하여 더 쉽게 돈을 쓰고 갚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시사용어 CHECK

카드대란
카드대란은 2003년 한국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대출 문제로, 카드사의 과도한 대출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이 겹쳐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금융위기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정부가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05인 사건 조작한 일본...독립운동 신민회를 공격하다

...신민회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국민 생활을 개혁할 새로운 사상이 시급히 필요하며, 우둔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중략)...부패한 정치를 일신할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중략)...이것이 신민회가 품고 있는 바이다. 요컨대 새로운 정신을 불러 깨우치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뿐이다....- 신민회 결성 취지서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신민회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합니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대한제국의 위기가 날로 고조됩니다. 1907년 결성된 신민회는 당시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참여한 비밀 결사 단체였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신채호, 박은식, 이회영, 이시영, 이상재, 김구 등이 참여했습니다.

신민회는 민족 교육의 추진과 민족 산업의 육성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애국심을 고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곳곳에 많은 학교를 설립합니다.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평양), 이동휘의 보창학교(강화), 이승훈의 오산학교(정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선인 중심의 경제적 실력 양성을 강조하여 평양자기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신민회는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안창호는 '실력을 양성함에는 상당한 세월을 요하므로 그 실력이 생긴 때에 무력으로써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일병합 직후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회영은 당시 엄청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서간도로 이주하여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강습소 개교식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무관학교'라는 명칭 대신에 강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신흥(新興)강습소의 신흥은 '신(新)민회가 나라를 부흥(興)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훗날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지청천, 이범석, 김원봉, 나석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고 35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서로군정서를 조직하거나 청산리전투를 비롯한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왜 일본은 105인 사건을 일으켰나요?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의사가 친일 행위를 하던 스티븐슨을 사살하였습니다. 1909년 10월 만주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고, 두 달 뒤 서울 명동에서 이재명 의사가 친일파 이완용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들 3명 모두 서북(황해도·평안도) 출신이며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당시 신민회는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1910년 8월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병합 이후 조선인들의 반발을 누르면서 감압적인 현 병경찰동치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직후 안중근의 사촌 안병근이 만주의 무관학교 건립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안약사건). 조선총독부는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위해 이 사건을 확대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민회에 큰 타격을 주었던 '105인 사건'



도산 안창호.

4808

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서북 지방의 6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마구 체포하고 그중 12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진 105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 경찰은 없는 일을 자백하라며 끌고온, 손톱과 발톱에 대나무 못 박기, 입 안에 석탄가루 쑤서 넣기 등 72가지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진 고문 과정에서 김근형, 정희순 등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1912년 6월 사건 피의자들을 구속한 지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23명의 기소자를 한꺼번에 재판정에 세울 수 없어 재판정 공간을 늘리는 공사까지 했습니다. 김일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들이 모두 경찰 신문에서 허위 사실을 시인한 것은 가혹한 고문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검사는 '12월 26일 평양에 있던 안태국이 동지 60명을 인솔하여 평안도 정주역에 도착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었으나, 안태국은 12월 26일 오후에 서울 명월관에서 양기탁, 이승훈 등을 만났다고 그날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요리대금 27원짜리 영수증과 다음 날 아침 광화문 우체국에서 보낸 자신의 전보문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태국은 재판에서 '내가 신도가 아닌데 어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울과 평안도에 있을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검사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평안도 정주역에 내린 승객이 9명에 불과했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60여 명이 왔다는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37일 만에 속개된 공판에서 새로운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를 모두 기각하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123명의 기소자 중 이창식 등 18인을 제외한 105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주요 인물들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민회에 참여하였던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 애국지사들은 이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 1 신민회를 사실상 해체시킨 일제의 조작 사건은?
- 2 신민회의 안창호를 중심으로 평양에 세운 사립학교는?
- 3 신민회와 이회영 등이 서간도에 세운 무관학교 이름은?

시대의 비극적 아픔, 야구·문학으로 이겨냈다

광주

지난달 예기치 않게 3박4일 동안 광주에 고립(?)됐다. 인생은 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새삼 생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를 벌리자면 “야구 보러 갔다가 광주 3박4일 여행한 썰 폰다”라고나 할까. 발단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직관을 하면서부터다. KIA 타이거즈 팬인 나는 한국시리즈를 보기 위해 그 치열하다는 ‘피케팅(피가 터질 듯 치열한 티케팅)’을 뚫고 1차전 티켓을 구했다. 경기가 끝난 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올라올 생각이었다. 문제는 날씨였다.

월·화요일 이들 동안 광주에 비 예보가 있었다. 10월 21일 월요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하더니 경기 시간이 되자 약하게 흠뻑리기 시작했다. 이미 매진을 이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인산인해였다. 한국시리즈가 치러질 야구장은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외관을 뽐내고,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은 모두 들뜬 얼굴로 긴 줄을 서 있었다. 프로야구의 가장 큰 잔치이므로 비가 오더라도 경기는 개최될 듯했다.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애매한 강수량은 그라운드에 방수포를 깔았다가 걷었다가를 반복하게 했다. 그러다 마침내 1시간이 지연된 저녁 7시 30분, 플레이볼이 선언됐다.

6회초 삼성 라이온즈가 1대0으로 앞선 무사 1, 2루 상황에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서스펜디드(suspended) 경기가 선언됐다. 중단된 시점부터 나머지 경기를 다음 날에 치르는 야구 규정이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광주 운암동에서부터 농성동까지 터덜터덜 걸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저녁을 먹기도 마땅치 않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이튿날엔 비가 더 많이 내렸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1차전 중단 경기와 2차전이 모두 다음 날인 23일로 연기됐다.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라 수업이 없어 다행이었다. 1박에 2만4000원 뛰어난 가성비 숙소인 농성동 드라마모텔에서 하루 더 묵기로 했다. 점심에 화정동의 현지인 노포 맛집 ‘김서방국밥’에 가 든든하게 속을 채웠다. 거리에서도, 국밥집에서도, 시내버스에서도 어딜 가나 야구 이야기가 들렸다. 드라마모텔 투숙객들도 대부분 한국시리즈를 보러 다른 지역에서 온 야구팬들이었다.

그날 저녁엔 시내버스를 타고 총장로에 갔다. 하차하기 전 버스에서 “이번 정류장은 문화전당역,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입니다”란 안내 방송이 나왔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 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광주 곳곳에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보였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최근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 그 책을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빗방울이 어딘지 음울해 보였지만 일기예보를 보니 23일은 쾌청할 예정이었다. 총장로 맛집으로 알려진 ‘광주보쌈’에서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김치를 맛있게 먹었다.

수요일이 밝았다. 1차전 잔여 경기만 보고 서울로 올라가려니 아쉬웠다. 2차전까지 보자는 생각에 취소표를 찾았는데 운 좋게 구할 수 있었다. 드라마모텔에 1박을 더 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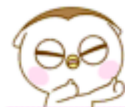
장하고는 오전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갔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4시지만 야구장 명소 ‘인크커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광주에 야구를 보러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야구공방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상대팀이지만 KIA와 삼성 관중들이 서로 살갑게 대하는 게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케케묵은 지역감정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시간 여유가 있는 김에 KIA 타이거즈 팀스토어에도 들렀다. 개장 1시간 전인데도 굶주리는 팬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일찍 줄을 선 덕분에 그동안 갖고 싶었던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을 구입할 수 있었다.

새로 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1차전과 2차전 모두 KIA가 이겼다. KIA 팬으로서 2박3일 동안 지고 있다가 하루에 2승을 맞은 기분은 하늘을 날 듯했다. 광주 지역경제에 쓴 돈이 아깝지 않았다. 이불 대신 행복감을 덮고 갔다. 다음날 아침에 광산동의 ‘하얀집 나주곰탕’에서 곰탕 한 그릇 먹고 나자 비로소 3박4일의 야구 여행이 끝났다.

3차전에서 진 KIA는 4, 5차전을 내리 이기며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경기를 중계하던 한명재 캐스터가 외쳤다.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에서 타이거즈는 운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프로야구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 멋진 우승골을 들으면서 나는 며칠 전 버스를 타고 광주 총장로에서 내릴 때를 떠올렸다. 시대의 비극적 아픔을 은뉘로 앓은 도시, 그 아픔을 야구와 문학으로 이겨내고 프로야구 통산 최다 우승과 노벨 문학상이라는 환희의 꽃을 피워낸 도시에 언제고 또 가리라고, 그때도 드라마모텔이 묵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여행정보

광주광역시까지 서울 출발 기준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KTX로 2시간 남짓이면 간다. 지하철 광주송정역이 연결돼 있어 광주 시내로 이동할 수 있고 광주역까지 가는 셔틀 열차를 탈 수도 있다. 셔틀 열차 운임 요금은 1000원 이고 15분 소요된다.



고기 조금만 덜 먹어도... 탄소 줄이고 지구 살리고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게티이미지뱅크

내 취미는 맛있는 비건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비건 음식이란 동물성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말한다. 비건이라고 하면 흔히 채소만 들어간 샐러드를 떠올리지만 비건 요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나는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육식은 식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피하려고 할 뿐이다.

육식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나만의 작은 실천이기도 하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인류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농도 증가를 꼽는다.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인데 농도 자체는 사실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약 420ppm이었고 메탄 평균 농도는 약 1934ppb였다. 이산화탄소 농도 420ppm이라는 의미는 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이산화탄소 분자가 420개 있다는 뜻이다. 메탄 농도 1934ppb는 공기 분자 10억 개 중 메탄 분자가 1934개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4%이고 메탄은 약 0.00019%에 불과하다.

온실기체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 온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짧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형태로 대기를 통과해 지표에 도달한다.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는 파장이 긴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때 온실기체가 지구 밖으로 나가려는 적외선을 흡수해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 지양도막막아준다. 그 결과 지구는 따뜻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온실효과 덕분에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5°C로 유지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온실기체는 마치 겨울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요와도 같다. 만약 온실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8°C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극 월동대원이 입는 두꺼운 옷이 우리의 일상복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온실기체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다. 문제는 인류 활동으로 온실기체 농

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사용 확대, 산림 파괴, 산업 공정의 확장 등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가축 사육과 비농사 같은 농업 활동,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으로 인해 대기 중 메탄 농도도 크게 증가했다.

2024년 10월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온실기체 연보에 따르면 2023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에 비해 약 51% 증가했다. 대기 중 메탄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대비 16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기체 농도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 또한 상승했다. 2024년 1월에 WM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45 \pm 0.2^\circ\text{C}$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1.5°C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기후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현 추세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음식에서 고기를 조금 덜어 내는 방식을 택했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기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일이 나의 작은 기후 행동이 됐다.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구를 위해 우리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가 아닐까 싶다. 작은 행동이지만 80억 지구인이 함께 실천한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11월 1일은 '세계 비건의 날'이다. 일 년 중 하루라도 지구를 위해 한 끼 채식 실천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극지연구소 박사



핵심포인트!

- 1 온실효과란 무엇일까?
- 2 인류 활동으로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 3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잠깐 놀아도 돼” 유혹 뿌리칠 ‘계영배’ 만들자

계영배는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술을 채우면 잔에 술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비워지는 신기한 술잔이다. 원래 이 술잔은 중국 유교의 식에 사용되던 의기(儀器)에서 유래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만주의 거상 임상옥이 소유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계영배는 술이 잔 용량의 70-80% 정도 채워진 후 그 이상을 따르면 공기압과 술의 압력 차를 이용해 잔이 비워지도록 설계됐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이름처럼, 과학적 원리보다 그것을 만든 의도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옥과 같은 거부가 자신의 탐욕과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 이 잔을 활용했다는 점이 더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계영배는 절제와 균형을 상징하는 기능 외에도 실제 사용자들이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절주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임상옥과 같이 분별력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제 장치라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잊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역할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런 잔을 활용하는 것은 더 실질적인 절제 수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도 계영배와 같은 상징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절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영배의 기능과 의도는 행동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계획자-행동자 모형과 맞닿아 있다. 행동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생애 전반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자(planner)와 현재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행동자(doer)라는 두 자아가 대립하는 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 세일러에 따르면 계획자는 미래를 고려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반면, 행동자는 당장의 만족에 우선순위를 두며 계획자의 의도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형은 사람들이 금연, 다이어트, 저축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도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대비해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방학을 앞두고 여러 생산적 목표를 설정하고도 이를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자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미래의 좋은 성적표를 목표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계획자는 성적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공부와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막상 실천할 때가 되면 지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자가 방해를 하곤 한다. 행동자는 “지금 잠깐 쉬어도 돼”, “오늘 하루 놀아도 내일 공부할 수 있어” 같은 핑계를 만들어내며, 계획자의 노력을 방해한다.

행동자가 이렇게 쉽게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행동경제학에서는 쌍극형 할인(hyperbolic discounting)으로 설명한다. 쌍극형 할인은 사람들이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의 편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먼 미래의 성적이나 건강한 몸은 높은 할



계영배. 국립박물관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인율로 저평가하지만 당장 수고해야 하는 공부나 운동은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으로 고평가한다는 것이다.

행동자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행동경제학에서 계영배는 유혹 극복을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행동자의 자아가 나타나기 전에 뜻대에 자신의 몸을 묶었던 오디세우스처럼, 계획자의 목표를 지키고 행동자를 견제하기 위해 계영배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작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계영배가 제시하는 ‘넘침에 대한 경계’는 좋은 교훈이 된다. 예를 들어 시험공부를 할 때 먼 미래의 성적 향상을 보상으로 삼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좋아하는 간식과 같은 소소한 보상을 주거나 목표 미달성 시 징소 같은 작은 징벌을 내린다면 행동자의 유혹을 극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성적 상태에서 미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는 행동자가 장기적 가치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계획자가 세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작은 보상 체계 혹은 계영배와 같은 음(-)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계영배는 단순 절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실질적 장치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각자 자신의 행동자를 제어하고 계획자가 설정한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나만의 계영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강원대학교 교수



시사용어 CHECK

행동경제학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후 얻은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



현재형으로 쓰이면 동사... 안되면 형용사

‘단어’란 무엇일까? 국어에서 단어란,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리고 그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한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어의 단어들을 모두 모아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한다.

문법 학계에서는 국어의 품사 개수를 여섯 가지 혹은 열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대명사·수사, 동사·형용사, 관형사·부사, 조사, 감탄사 등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로 분류되는 단어들은, ‘-다’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은 아주 직관적이다. 다음의 예시 단어들을 동사 혹은 형용사로 구분해보자.

새로 산 옷이 1) 예쁘다.
봄바람이 2) 따뜻하다.
동생이 학교에 3) 가다.
방에서 잠을 4) 자다.

‘예쁘다, 따뜻하다’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형용사, ‘가다, 자다’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예시들을 또 생각해보자.

그 친구는 나이에 비해 1) 젊다.
산에서 자연인으로 2) 늙다.

‘젊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늙다’는 ‘젊다’의 반대 의미를 가졌으므로 역시나 형용사로 분류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늙다’는 국어에서 ‘동사’로 분류된다. 정말 흥미로운 구분이 아닐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단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려고 할 경우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으로 품사 분류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까?

‘동사, 형용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기억해 두어도 충분하다.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이 세 가지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본 예시 단어들을 이 기준에 의해 생각해보자.

- 1) 예쁘다: 예쁘자(x), 예빠라(x), 예쁘다(o)
- 2) 따뜻하다: 따뜻하자(x), 따뜻해라(x), 따뜻한다(o)
- 3) 가다: 가자(o), 가라(o), 간다(o)
- 4) 자다: 자자(o), 자라(o), 잔다(o)
- 5) 젊다: 젊자(x), 젊어라(x), 젊는다(o)
- 6) 늙다: 늙자(o), 늙어라(o), 늙는다(o)

‘예쁘다, 따뜻하다, 젊다’는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형용사로 분류된다. 그에 비해 ‘가다, 자다, 늙다’는 세 가지 모두 가능하며,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늙자, 늙어라’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영원히 같이 늙자, 곱게 늙어라’와 같은 문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우리 마을에 높은 빌딩이 1) 건설되다.
학교에 여러 동아리가 2) 형성되다.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건설되다: 건설돼라(?) 건설되자(?) 건설된다(o)
- 2) 형성되다: 형성돼라(?) 형성되자(?) 형성된다(o)
- 3) 사용되다: 사용돼라(?) 사용되자(?) 사용된다(o)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설되다, 형성되다, 사용되다’는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명령형과 청유형은 쓰임이 어색하지만, 현재형으로는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는 ‘-되다’의 의미적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은 ‘현재형으로 쓰이는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2017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새롭게 품사를 분류한 다음의 단어들만 이 기준과 다르니, 이번 기회에 눈여겨봐 두면 된다.

- 1) 잘생기다. 못생기다
- 2) 잘나다. 못나다

기준에는 형용사로 분류되었던 단어들이었는데 새롭게 동사로 인정되었다. ‘잘, 못’ 뒤에 결합한 ‘생기다, 나다’가 동사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품사 분류를 다시 한 것이다.

알쏭달쏭했던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이제 어렵지 않다. 단어의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몇몇 단어들만 제외하고, 현재형이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이다!

메가스터디 강사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핵심목!

- 1 품사란, 국어의 단어들을 모두 모아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
- 2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명확한 기준은 ‘현재형으로 쓰일 수 있는가’
- 3 현재형이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



영어시험 전 가볍게 예열할 수 있는 주요 어휘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부득탐승(不得貪勝)'이라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의 격언으로 '실수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한 문장만 제대로 걸려라. 반드시 답은 찾는다'는 기세로 도전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시험 시작 전 쉬는 시간에 가볍게 읽으며 '예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다. 이미 국어와 수학 시험에 집중해 피로해진 두뇌도 잠시 쉬어야 한다. 점심 시간 이후 간단히 몸을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선택지 형태의 주요 어휘를 살펴보자. 시험 준비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예열이 될 수 있다.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1) hard-wired(타고나는)

hard-wired는 인간이나 동물의 특정 행동과 반응이 태생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고정돼 있다는 뜻이다. 즉 학습이나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생물학적이거나 유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성향이나 반응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전자나 컴퓨터 회로가 고정돼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해 사용된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는 natural(타고난), innate(선천적인), biologically programmed(생물학적으로 정해진) 등이 있다.

Humans are hard-wired to seek social connections.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다.)

선천적이고 변하지 않는 행동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hard-wired의 반대 개념으로는 학습되거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다음 단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특성과 대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거나 후천적으로 습득된 특성을 강조한다.

- learned(학습된): 선천적이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획득한 특성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 conditioned(조건화된):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훈련을 통해 형성된 반응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 flexible(유연한): 선천적으로 고정된 특성과는 달리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변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2) conventional(관습적인)

conventional은 과거에 익숙하던 방식이나 전통적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나 혁신을 추구하지 않고 오래된 방식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점에서 다음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 traditional(전통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오래된 방식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conservative(보수적인):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다.

The company relies on conventional marketing strategies.
(그 회사는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에 의존한다.)

conventional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고 기존 방식을 따라 한다는 의미와는 반대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 innovative(혁신적인):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창출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innovative는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강조한다.
- progressive(진보적인):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을 강조한다.

(3) marginalized(소외된)

marginalized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되거나 주변화돼 그들의 발언권이나 권리가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정치적 구조에서 그들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밀려나는 것을 나타낸다.

- excluded(배제된): 특정 그룹에서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밀려난 상황을 나타낸다.
- alienated(소외된): 소외되거나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Many communities are marginaliz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많은 공동체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다.)

marginalized의 반의어로는 주류에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 included(포함된): 주류 또는 특정 그룹에 속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강조한다.
- empowered(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를 나타낸다.
- mainstreamed(주류에 편입된): 특정 집단이나 개별 인물이 사회의 주류로 통합되고 일반적인 흐름에 포함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소외된 그룹이나 특수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적·교육적 주류로 편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투스 강사



- 1 hard-wired: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 2 conventional: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이나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 3 marginalized: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돼 발언권이나 권리가 제한된



‘가느다란 실’ DNA는 왜 다른 모양 하고 있을까?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17세기 영국의 로버트 훅은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세포를 처음 발견했다. 이후 고배율 현미경과 다양한 염색액의 발달로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의 구조 및 성분을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게 됐다.

19세기 중반 세포를 염색액으로 처리하고 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핵 속에 독특한 구조의 물질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물질은 세포마다 그 모양이 독특했다. 핵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거나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관찰됐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에 그저 염색이 잘 된다는 의미로 ‘염색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실이 염색체는 유전을 담당하는 유전 물질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염색체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구조인데 20세기에 접어들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염색체가 유전 물질임이 밝혀졌다. 세포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 물질의 정확한 복제와 분배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은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열 과정에서 정보를 잃어버릴 위험이 높다.

생명체들은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는 구조물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라면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염색체 성분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DNA와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DNA는 유전자 본체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할까?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밝혀낸 바와 같이 이중나선 구조로 된 DNA는 가느다란 실 모양이다. 사람의 세포 한 개에 들어 있는 DNA의 총길이는 약 2m다. 사람의 세포 개수를 약 60조개라고 가정하면 우리 몸에 들어 있는 DNA의 총길이는 60조×2m에 달한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를 40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와 같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DNA가 지름이 5 μ 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핵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히스톤이라 불리는 단백질 DNA 분자와 함께 여러 번 꼬여서 최소한으로 응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 뉴클레오솜이라는 기본 단위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DNA에 연결되어 마치 줄에 꿰어진 것 같은 구슬 모양의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다시 여러 번 구부러지고, 뭉쳐져서 보다 두꺼운 구조의 염색사를 형성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는 더욱 꼬여서 가장 응축된 형태인 염색체를 이루는데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는 길게 늘어진 DNA 가닥보다 세포 분열 시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세포가 평상시에도 응축된 형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면 DNA의 활동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치 이삿짐을 모두 싸버린 후에 가재도구를 찾아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시기에 염색체는 DNA의



제임스 왓슨(왼쪽)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 이중나선 모델 앞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Science Photo Library

활동이 쉽게 일어나도록 길게 풀어진 실 모양으로 존재하며, 광학 현미경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세포 분열 중에 나타나는 응축된 염색체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세포가 핵분열을 하기 전에 DNA는 이미 복제되므로 분열 중인 세포에는 두 배의 DNA가 들어 있고, 각 DNA는 독자적으로 응축하여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각 염색체는 유전자 조성이 동일하고 똑같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지는데, 이 염색 분체는 동원체라고 하는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에 서로 붙어 있다. 핵분열이 진행되면서 각 염색 분체는 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 들어가는데 4개의 딸세포는 완전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를 받게 된다.

사람은 세포 1개당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두 개씩 모두 23쌍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상동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며, 생식 세포가 생성될 때 이들은 다시 나누어져 각기 다른 생식 세포에 하나씩 들어간다.

23쌍의 염색체 중 남녀가 공통으로 갖는 1번에서 22번까지 염색체 쌍을 상염색체라고 한다. 나머지 한 쌍은 성에 따라 모양이 서로 다르고, 성 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성염색체라고 한다. 사람의 성염색체는 X, Y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의 체세포에는 X와 Y염색체가 각각 1개씩 존재하고, 여자의 체세포에는 X염색체만 2개가 있다.

이투스 강사



- 1 DNA는 히스톤 단백질에 꼬인 후 응축되어 염색사를 형성한다.
- 2 염색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더 응축되어 염색체를 형성한다.
- 3 사람은 세포 1개당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학종 면접, 기출문제로 미리 대비해야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두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의 핵심은 면접관에게 대학이 선발하려는 인재가 바로 '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할 역량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보여줘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 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목표 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해 면접 유형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시문 면접과 서류기반 면접으로 나뉘어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은 크게 두 유형으로, 제시문 면접과 서류기반 면접으로 나뉜다. 서류기반 면접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수험생의 학생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된다. 반면 제시문 면접은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문을 읽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시문 면접은 난도가 있는 편으로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시행한다. 제시문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 가능한 교과지식확인 면접, 제시문을 읽고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평가 면접이 있다.

교과지식확인 면접은 서울대 자연계열이 대표적이고,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평가 문항은 고려대, 연세대가 대표적이다. 제시문 면접은 면접 전 계열별·모집단위별 제시문을 정해진 시간 동안 읽고 면접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 학과 및 계열과 연관된 제시문이 출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입 면접 유형 구분

면접 종류	내용
서류기반 면접	학생부 확인 면접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진행하는 유형
제시문 면접	교과지식 확인 교과지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 가능 ex) 서울대 자연계열학과에서 진행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평가 제시문(표, 그림) 해석·논리적 답변 구성 ex) 고려대, 연세대 출제

대학별 기출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1) 서류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은 학생부를 토대로 질문이 구성되는데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과정, 장래희망, 봉사활동, 교과관리 등이 대표적인 질문 항목이 될 수 있다.

모든 질문을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 중 소개하고 싶은 사례를 선정해 예상 질문과 연결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답변의 우선순위를 정해 좀 더 자신이 부각시키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을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하면 좀 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면접 답변리스트 작성 예시

우선 순위	활동명	학년	활동내용	변화 (느낀점)	핵심역량
1	미생물 실험	2	동아리장으로 주제 선정...	이론을 눈으로 확인...	진로, 리더십
2	보고서 작성	3	○○○를 주제로 참가...	생화학기초 지식을...	학업역량, 진로
3	토론 대회	1	생명윤리 문제로...	동물실험에 대한 가치관...	진로, 가치관
4	독서 활동	2	□□□ 도서를 읽고...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소통, 진로
5	자율 실험	2	삼균식품 △△△ 주제로	논문을 읽고 탐색 과정...	학업역량, 진로

(2) 제시문 면접

① 교과지식확인

교과지식확인 면접은 제시문에 출제된 문항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면접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지만 난도가 있는 편으로,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는 어렵다. 평소 수능시험 준비를 하며 개념을 탄탄하게 쌓고 기출을 통해 문항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평가 면접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평가 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면 된다. 교과지식확인 면접이 높은 수준의 교과 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평가 면접은 제시문 해석과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을 해석하는 능력은 수능 국어 독서지문을 해석하면서 연습할 수 있다. 제시문 해석과 답변 준비시간을 면접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한 뒤 기출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면접으로 입시 결과 뒤집은 사례도 다수 존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 합불 변동들을 보면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35.4%가 되는 인원이 1단계에서는 합격권에 들 수 없었지만 면접을 통해 2단계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면접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등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 합불 변동

계열	최초 합격자 기준				합격자 전체 기준			
	합격 인원	합격 ↓	불합격 ↓	변동률	합격 인원	합격 ↓	불합격 ↓	변동률
인문	513	329	184	35.9	833	648	185	22.2
자연	382	243	139	36.4	620	483	137	22.1
의약학	91	55	36	39.6	147	107	40	27.2
예술체육	106	78	28	26.4	155	125	30	19.4
합계/평균	1092	705	387	35.4	1755	1363	392	22.3

※ 자료: 2025 경희대 학생부전형 가이드북



남은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통장발급·환전 체험...은행원 '꿈' 키워줘요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금융교육을 위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2년 시작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신한금융의 이 프로그램들은 은행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직원들은 신한금융의 어린이 경제·금융 프로그램에 멘토 강사, 창구 봉사자로 직접 참여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초등학교 3~4명이 한 조가 돼 통장 발급, 적금 가입, 카드 발급, 환전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미션을 통해 수행하며 보다 쉽고 재미있게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교육'은 자유학년제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의 전용 체험관에서 은행원 직업 감의 및 분야별 소개를 시작으로 직접 은행원과 고객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청소년들에게 이동점포(뱅버드)와 함께 방문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Tech 봉사단'의 '어린이 코딩 체험 교실'이 있다. Tech 봉사단은 신한은행 Tech그룹 직원들이 정보기술(IT) 전문지식을 활



신한금융이 지난 8월 개최한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종료 후 참여 어린이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용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2024년 출범한 봉사단이다.

'어린이 코딩 체험 교실'은 2024년 하반기에 총 5회 차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한 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 교실도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 교실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참가 신청한 초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비트 기초 코딩 실습 △링비트카 만들기 등 재미와 즐거움을 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에 신한금융그룹의 '신한 금융교육강사' 참여 직원이 2024년 4월 기준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 신한은행 차원에서는 지난 4월 '신한 금융교육강사' 11기 발대식을 진행해 169명의 금융교육강사를 신규로 선발했다. 이로써 신한은행 금융교육강사는 기존 864명에서 누적인원 총 1033명으로 확대됐다. 박인혜 기자

자격증·직업체험...홀로서기 청년에 희망을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자립 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시설 입소부터 자립 전까지 금융 지원금 제공과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심리 상담 등 성장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꿈도깨비' 사업을 통해 자립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보호아동 성장 지원 사업인 꿈도깨비는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언어교육부터 심리 상담, 금융교육, 디지털 창의교육, 진로·직업체험, 자격증 취득까지 다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교보생명은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해 언어·인성·정서·금융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립을 앞둔 17세 이상 청년이 교보생명 금융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인당 100만원씩 자립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들은 통장 개설부터 저축, 펀드, 보험, 주식 등의 금융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립 준비 청년 200명이 총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지원 사업도 있다. '교보드림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한 자립 준비 청년이 교보생명 관계자로부터 금융 상담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

에겐 ICT 분야 체험 교육을, 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는 드론·웹툰·3D프린터·코딩 등의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교보 드림 메이커스에 1664명이 지원해 1509명이 ICT 체험 교육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자립 준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나눔국민대상 사회공헌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최근에는 임직원과 보호아동들이 함께 해외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라오스 나후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초등학교 놀이터 보수, 교실 페인트칠 등 시설 정비 이뤄졌다. 이희조 기자

선물과 함께... 장애아동에 '힐링' 배달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장애인 가정 아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체국과 함께하는 힐링필링 데이'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는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의 소원 선물을 배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장애인 가정 아동과 대학생·대학원생 자원봉사자 멘토를 연결해주는 행사를 한 것은 2006년부터다.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사업으로, 멘토로 선발된 이들은 아동과 1대1 매칭돼 건강 관리, 학습 지원, 금융 교육 등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아동들을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키자니아



'우체국과 함께하는 힐링필링 데이'에 참여한 장애 가정 아동들과 멘토,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서울)로 초청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멘토 봉사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상(3명)과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상(8명), 멘토링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아동에게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상(3명)을 각각 수여하는 등 격려 자리도 마련했다. 박인혜 기자



15년째 이어온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 주력 중이다.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은 메리츠화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15년 전인 2009년부터 사회 전반의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청소년 금융교육인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 임하고 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사가 전국 각지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 학교 학생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 습관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메리츠화재는 기존 83개교였던 결연학교를 142개교까지 대폭 늘려 연간 7300여 명의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가 주최한 '2024 서울 초청 금융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방문교육 외에도 뮤지컬, 금융게임복 등 체험형 교육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험 활동이 어려운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직접 서울로 초청해 2박3일간 운영하는 '서울 초청 금융캠프'를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금융 취업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

내게 딱 맞는 투자법, AI가 알려줘요

한국투자증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으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AI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추천해주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국투자' 앱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로보어드바이저(RA) 랩어카운트 상품을 추천해주는 'MY AI' 서비스를 출시했다.

랩어카운트(이하 랩)는 여러 투자 상품을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때 각각 관리하기가 복잡할 수 있다. 랩은 이런 투자 상품을 한곳에 모아 전문가들이 돈을 효율적으로 불릴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에게 맞춤형 로보어드바이저 랩어카운트 상품을 추천해주는 'MY AI'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MY AI'는 AI가 고객의 개인정보, 투자 성향·계획, 소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 1억3000만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여러 로보어드바이저 랩 상품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박인혜 기자

초조해지는 수험생... 복식호흡으로 릴렉스

드디어 오는 11월 14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수험생 건강 톨아보기'도 3월 정신건강을 시작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함께해 왔습니다. 수능일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부터는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몸과 마음 건강을 챙겨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면 수능 당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수중 교수의
청소년 건강 톨아보기

1. 수험생의 컨디션 유지는 영양 관리와 함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집중력과 체력 유지를 위해 식사 관리는 필수입니다. 우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오전 집중력이 떨어지니 꼭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두뇌와 신진대사를 돕는 과일, 채소, 단백질을 섭취해 지치지 않도록 하고, 시험 준비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아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있는 식사는 긴장 완화와 재충전을 돕습니다. 과식은 피하고, 약간 부족한 듯 먹는 것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2. 규칙적인 루틴과 수면 패턴 유지가 필수

수능에 임박하여 급한 마음에 갑자기 잠을 즐기면 습득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시간을 갑자기 대폭 늘리거나, 일찍 자고 일찍 깨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겠다는 생각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면 패턴 변화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평소 패턴을 유지하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가까울수록 불안, 초조,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 6~7시간은 자는 것이 바람직하며, 톨아보기 3월 호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그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험생도 지금부터는 시험 시작 2~3시간 전에는 기상하는 식으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식호흡과 명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은 평소 실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감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식호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은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으로, 신체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니, '지금 내가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듯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한결 풀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4. 눈앞에 다가온 결승선, 조금만 더 집중을

수험생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을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수험생 건강 톨아보기'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3월호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외부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노력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너무 높은 목표에 지치지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앞으로 맞이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성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앞둔 대학 수능
집중력·체력 유지 중요

아침 식사 거르지 말고
과일·채소·단백질 섭취

시험 2~3시간 전 기상
규칙적 수면 패턴 유지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감
간단한 명상도 큰 도움



비만약 ‘위고비’ 오남용 막아야

대전중학교 2학년 손서윤

최근 ‘위고비’가 체중 감량을 위한 비만 치료제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고비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만든다. 특히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위고비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5곳 모두 처방이 가능했고 통화가 2분을 넘기지 않아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위고비의 부작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약물을 남용할 위험이 커진 것이다.

위고비의 불법 유통 문제도 심각하다. 위고비를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위고비’ ‘다이어트약’ 등을 금지어로 설정하고,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분명 위고비는 비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후 복용해야 한다. 위고비의 오남용 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위고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부 및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와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가짜 신분증’ 범죄 심각

광남중학교 2학년 노윤영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탈선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도용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고 유흥업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위조 신분증에 의한 청소년 범죄는 약물 구매, 불법 게임 참여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은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경범죄라 하더라도 신분 위조·변조 도용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도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과 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디지털 인증 시스템 도입 등 가짜 신분증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찾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종이빨대 알고보면 친환경 아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정지은

최근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환경문제다. 환경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 역시 심각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던 정책은 종이 빨대 도입이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수많은 카페에 종이 빨대가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플라스틱 빨대는 음료와 오래 닿아 있어도 마시는 데 지장이 없지만, 종이 빨대는 음료와 오래 닿게 되면 종이 녹아 빨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게다가 종이 빨대 역시 완전한 친환경 제품은 아니었다. 일부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PE 코팅이 돼 있어 분해되지 않고 남게 된다. 심지어 재활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2020년 EPA 보고서에 의하면 1.55t의 종이 빨대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빨대보다 5.5배 많은 8.35t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되려 환경을 위협하는 꼴이 된 것이다. 친환경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 빨대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개인들이 술선수법해 줄이기 시작한다면 일회용품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환경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만 늘어난 임시공휴일

대전중학교 2학년 김민서

윤석열 정부가 국군의 날(10월 1일)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역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부분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다. 하지만 ‘트립닷컴’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긴 10월 ‘징검다리 휴일’에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 오사카로 가장 많이 떠났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내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 중 약 25%에서 중간고사, 현장학습이 예정돼 있던 터라 일정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됐다. 이날 중간고사가 예정돼 있던 전국 중·고교 가운데 약 89%가 시험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을 변경하지 못한 학교들은 그대로 시험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군, 간호 사관학교 사관생도들도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행진을 위해 3주간 수업을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 효과는 의문이었으며 학생들도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추후 공휴일 지정 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49회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시험일

2024년 11월 30일(토)

접수기간

10월 21일(월)~11월 18일(월)

힘껏

수험생
화이팅!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적확인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답 란

	0	1	2	3	4	5	6	7	8	9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가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가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